

懶散 怠慢

한번가보고심은마암은일상잔절하건만성미가라산하야문밖나서기가슬키로진기
를못하여섭々하든차에글시보고반갑다일한이극심한대

豐備 豐備

성상이평길하고 친정문안은종々듯나나알고져바란다백부난한모양이오집안이
연고업스니다행일다생일이별날이며음식이무엇이풍비하라마난그려도집안이단

취하여날을보내난것이질거운일이어날네가오지못한다하니사세난그러하나정리
난심히창결하다보낸보선은긴이싹갯스나엇지그리만이하엿느냐도로여불안하다

분요하야슈자적난다

數字 數字

年 月 日 伯父 答書

伯母主前上書 暫時拜謁 (죽하가밤게잇서백모세올니난편지)

떠나올때잠시배알하압고도로가절원하와상셔도자조못하오니하정복송이오며설

한이심혹하오내

그레만강하압시고 백부주그력이못지아니하시오며중형도되시고무고하오며중

狀况 모양과
것흔뜻과
부모의
사고쳐
자거나
릿뜻

데공부도착실하오닛가복모구々부리압지못하압나이다유자난본항모덤의상업을
인계하온후로상황이흥왕하와근간에채무도만이벗삼고봉솔하온처디에글로의식
하오며사무원의월급주고객디에경비쓰고도저금이밀니난모양이오니이대로명해
지내오면힘이피일뜻하오이다항구난해물이소산인고로몇종류보내오니천슈에맞
보시압소서번요하와알외을말삼가초지못하압나이다

年 月 日 猶子名上書

侄兒同見 兒兄

懷抱 生과과
것흔뜻과

찬바람은문호를등하고싸인눈은산야를덮현난대생각이무궁러니서찰보니철리면
목을상대하야말하난뜻깃분마암측량업다이며혹한에
객상이안호하니먼데회포를죽히위로하리로다백모난여전이내고너의백부께서
도큰병환은아니계시고아해들도다잘있다나려갈때모덤을인계하난대채무가만타
하기글로판러가적지아니하더니상업이잘되어그사이채무도만이벗고원질안이사

經費 餘金 貯蓄
濫費 耗費 浪費
쓰난 뜻

라가고 경비쓰고 여금이 저축된다 하니 이난 아 마한을 이도으신 행복인 가보다 보내 해
물은 자제보고 긴이 먹겠스나 잊지그리만이 보내엿나야 아모쪼록 탐비말고 장래성가
하기를 만々 축원일다 아직긋치노라

前上書 任婦 伯母
곤어머님전상서

(질부가 백모제을니 남편지)

年 月 日 伯母 答
년 월 일 백모 답

汽車通路 後 千里 咫尺
기차등로될 후로난 천리가 지척갓삼건마난 여자행지가 임의로 못하와적년배일치

못하오니 사모하난 마암어느 때업사오릿가 초하일과점열하온대
氣體候 萬康 諸節 安寧 同 從 姪輩
기레후만갓하압시고 곤아버님제절이안녕하시오며 동사와종질배가 되시고 다 잘

잇삼나잇가 목모구구부리압지못하압나이다 질부난 되시고 무탈하오며 구고님제절
康健 伏慕 區々 姪婦
이강건하시오니 복행만々이오이다 옛날부녀의 침션재봉이야 단지손으로만하지재

봉침구경이나 하엿사오릿가 마난 근일은 향곡에 도별로업난집이업사와주의라 도경
縫針 近日 鄉谷 別
봉침구경이나 하엿사오릿가 마난 근일은 향곡에 도별로업난집이업사와주의라 도경

기간짓고슬기가 극히고으니 여름의복은그것업스면 과연어렵삼기로 몇해모은돈이
刻間 極 衣服 果然

頃刻 尙殘 사

保險 計 厄 難 事
집업난다

백은되압기 보내오니 평생써도 병아니 나난 기계로 보험표받으시고 하나 상품으로사
百圓 平生 病 機械 保險 上品
보내주시압쇼셔알외을말삼아직긋치압나이다

年 月 日 任婦 姓 上書
년 월 일 질부성상서

答 任婦 답질부

대소가 남북에 난위여상면도 극란하고서 신도 희활하여 항상한탄이러니 글월보고
大小家 南北 相面 極難 書信 稀闊 恒常 恨歎
대소가 남북에 난위여상면도 극란하고서 신도 희활하여 항상한탄이러니 글월보고

연고난업스니 다행일다 부탁한 재봉침은 근일녀공이야 잠시인들그것업고엇지할수
緣故 多幸 付託 裁縫針 近日 女工 暫時
연고난업스니 다행일다 부탁한 재봉침은 근일녀공이야 잠시인들그것업고엇지할수

가잇스라이 때엿업시지낸슈가 남못할일이 다 재봉기계회사에 로과하니 여러십년
裁縫機械會社 老婆
가잇스라이 때엿업시지낸슈가 남못할일이 다 재봉기계회사에 로과하니 여러십년

을집에다니 난대집에것도 그로과가사 온것인대 슈십년을 써도 병이업고 기계가조키
數十年 病
을집에다니 난대집에것도 그로과가사 온것인대 슈십년을 써도 병이업고 기계가조키

로 상품으로 부탁하여사 보내니 평생은질언못하나 몇십년은 무려하리라 인편이 총々
上品 付託 平生 質言
로 상품으로 부탁하여사 보내니 평생은질언못하나 몇십년은 무려하리라 인편이 총々

하야아직긋친다

質言 眞 實 話
난뜻하

從兄主前 上書 宗형주전 상셔

從弟 從兄 宗제가종형제을니난편지

年 月 日 伯母答

新元 正月 仲春 二月

新元 拜辭 仲春 新원에배사하고중춘이도라오니 초목이향영하온대업의여못잡나이다

寒暄 인사하 난말

氣候萬寧 從任兄弟 氣候만녕하시압고종질형제도되시고잘잇사오며공부근실하오닛가복송구사부임 之至 從弟 如舊 渾室 無故 昨日 本郡守 來到 寒暄 後 兒孩兄弟 學校工夫 萬端說喻 即今時代 來往 極難 寄宿 即到 寒暄 후에아모하해형제를학교공부를시기와만단설유하난대즉금시대에아니할슈난

업난타이오본군학교에보내자하니거리가삼십리나되오니래왕도극란이오괴속도 非便 京城遊學 定心 從任 作伴 學校 受學 比편하와경성유학을보내자고정심하엿사오니종질아모도작반하여하학교에슈학 居處 孤寂 工夫 勤勉 下諒 케하시면거쳐도서로고적지안코공부도서로권면이될뜻하오니 하량하압셔갓치

가게하시압소서이를위하와아직상셔가초지못하압나이다

年 月 日 從弟名上書 宗제명상셔

從弟奉答 宗제봉답

涓泉 흐르난 새암

積雪 涓泉 西隣農時 居然 此時春仲 體事萬重 從任 無故 十分慰幸 從兄 菜圃 西隣 池事만중하고종질이무고하니십분위행이르세종형은채포에나물심고서쥬에밭갈

駭人 달녀들 어기난

다릴것이아니니경성학교가대단조흔대물각한아해들이혹번화장에외도침입이될 念慮 京城學校 大端 沒覺 兒孩 或繁華場 外道駭人 加럼려되어아직자저중이나또일변생각하면학교공부도경성학교라야지식도발달

鍛鍊 외너루 닳하난

하고인재도단련하고문견도고루를면하겠스즉그대의상에이위돈정하엿스니사중 人材 鍛鍊 聞見 固陋 免 意 想 已爲 敦定 四從 兄弟 형제를모다보내게하쇼일잔만나다시말할차로아직곳치내

年 月 日 從兄字順 宗형자돈

從叔主前 上書 宗숙주전 상셔

從任 從叔 宗질이宗숙제을니난편지

容易 쉬운뜻

道里 絕遠 郵遞 連絡 書信來往 極 容易 道里난절원하나우체난 연락하오니서신래왕이극히용이하건마난뜻대잡을듬이업

사외일자상후도빈삭히못하오니항상죄송하오며추일이초량하온대 一字上候 顯數 恒常罪愆 秋日 稍涼 氣候萬安 從叔母主諸節 近安 再從弟 所工 着實 귀후만안하시압고 宗숙모주제절이근안하시오며재종제의소공도착실하오닛가

복축(伏祝)區々(區々)之(之)至(至) 이(自) 다(然) 종질(宗) 은(是) 월(月) 급(給) 에(에) 얽(얽) 매(매) 여(여) 일(日) 즉(即) 사(仕) 진(進) 하(하) 고(고) 늦(늦) 게(게) 나(나) 오(오) 면(면) 자(自) 연(然) 이(이) 오(오) 난(난) 사(사)

람(禮) 슈(酬) 응(應) 하(하) 고(고) 가(假) 극(隔) 이(以) 잠(暫) 시(時) 도(도) 업(業) 사(사) 오(오) 니(尼) 몸(몸) 은(은) 괴(怪) 롭(弱) 고(고) 집(集) 안(安) 은(은) 별(別) 고(고) 열(熱) 삽(삽) 나(나) 이(이) 다(다) 즉(即) 금(今) 아(아) 모(모) 사(사)

람(禮) 의(意) 게(各) 들(等) 사(舍) 온(溫) 즉(即) 재(在) 종(宗) 아(阿) 모(母) 를(를) 학(學) 교(校) 에(에) 보(報) 내(內) 려(려) 하(하) 시(시) 나(나) 괴(怪) 속(宿) 처(處) 를(를) 못(못) 었(었) 어(어) 못(못) 보(報) 내(內) 신(新) 다(다) 하(하) 오(오)

니(尼) 대(大) 소(小) 가(家) 간(間) 에(에) 서(書) 올(올) 집(集) 명(名) 색(色) 이(이) 잇(잇) 사(舍) 온(溫) 대(大) 방(房) 사(舍) 난(難) 추(추) 루(魯) 하(하) 고(고) 음(音) 식(食) 은(은) 소(素) 찬(餐) 이(이) 나(나) 한(한) 간(間) 용(容) 식(食) 하(하)

고(高) 두(두) 때(때) 참(參) 장(長) 하(하) 면(면) 공(工) 부(夫) 난(難) 못(못) 할(할) 것(것) 이(이) 아(아) 니(니) 오(오) 니(니) 하(下) 량(良) 하(하) 오(오) 서(서) 보(報) 내(內) 지(止) 난(難) 것(것) 이(이) 조(朝) 흥(興) 뜻(뜻) 하(하) 오(오)

이(自) 다(然) 아(阿) 직(直) 상(相) 서(書) 가(各) 초(朝) 지(止) 못(못) 하(하) 압(壓) 나(나) 이(이) 다(다)

이(自) 다(然) 아(阿) 직(直) 상(相) 서(書) 가(各) 초(朝) 지(止) 못(못) 하(하) 압(壓) 나(나) 이(이) 다(다)

年 月 日 從任名上書 宗질명상서

從任奉答 宗질봉답

우(郵) 체(遞) 가(假) 빈(頻) 작(數) 하(하) 니(니) 서(書) 신(信) 안(安) 부(否) 가(各) 엇(엇) 지(止) 피(彼) 차(此) 가(各) 잇(잇) 스(斯) 리(里) 오(오) 마(馬) 난(難) 서(書) 질(質) 이(이) 라(拉) 산(散) 하(하) 야(야) 한(한) 번(번) 도(도) 안(安) 보(報)

를(를) 램(禮) 문(文) 치(治) 못(못) 하(하) 니(니) 그(其) 대(大) 난(難) 죄(罪) 송(悚) 라(拉) 하(하) 나(나) 난(難) 무(無) 정(情) 라(拉) 하(하) 리(里) 도(도) 추(秋) 일(日) 이(이) 청(晴) 가(佳) 한(한) 대(대)

령(令) 리(履) 안(安) 중(重) 하(하) 고(고) 사(仕) 무(務) 가(各) 과(過) 이(이) 괴(怪) 롭(弱) 지(止) 아(아) 니(니) 하(하) 고(고) 혼(渾) 려(려) 이(이) 무(無) 고(高) 하(하) 니(니) 민(滿) 심(心) 위(慰) 희(喜) 라(拉) 종(宗) 속(叔) 은(은) 아(아)

배(輩) 의(意) 공(工) 부(夫) 나(勤) 권(勤) 하(하) 고(고) 동(僮) 복(僕) 의(意) 농(農) 사(事) 나(勤) 권(勤) 하(하) 기(基) 로(로) 소(消) 일(日) 이(이) 오(오) 집(集) 안(安) 도(도) 언(緣) 고(故) 난(難) 업(業) 노(老) 라(拉) 아(阿) 모(母) 이(이) 해(孩)

素餐 반찬업
容膝 납하난
充腸 배부른
뜻 배부른

懶散 게으른
뜻 게으른

令履 삼품음

生疎 疎
뜻 疎
復習 다시서
뜻 다시서

效力 효험

差道 나은뜻

학교(學) 공(工) 부(夫) 난(難) 불(不) 가(可) 할(不) 터(터) 인(인) 대(대) 아(아) 직(直) 도(도) 지(지) 각(覺) 이(이) 업(업) 고(高) 방(方) 향(向) 이(이) 적(적) 으(으) 니(니) 만(만) 일(일) 보(보) 낼(내) 더(더) 이(이) 면(면) 엇(엇) 지(지)

생(生) 소(疎) 한(한) 타(타) 인(人) 의(의) 집(집) 으(으) 로(로) 보(보) 내(내) 리(리) 오(오) 보(보) 내(내) 지(지) 말(말) 나(나) 하(하) 여(여) 도(도) 장(將) 차(次) 보(보) 내(내) 겿(겿) 스(스) 나(나) 거(거) 쳐(쳐) 음(음) 식(食) 도(도) 오(오) 히(히)

려(려) 들(들) 재(재) 오(오) 일(일) 활(活) 상(上) 학(學) 시(時) 간(間) 에(에) 일(일) 즉(即) 보(보) 내(내) 고(고) 하(하) 학(학) 한(한) 후(後) 라(拉) 도(도) 학(學) 교(校) 에(에) 서(서) 배(배) 운(운) 것(것) 을(을) 부(부)즈(즈) 린(린) 이(이) 복(復)

습(習) 하(하) 야(야) 심(心) 상(上) 에(에) 괴(怪) 송(送) 하(하) 여(여) 야(野) 량(良) 유(遊) 를(를) 면(免) 할(將) 터(터) 이(이) 니(니) 글(關) 로(慮) 괴(無) 려(窮) 무(無) 공(空) 하(하) 다(다) 아(阿) 직(直) 곳(處) 치(治) 노(老) 라(拉)

아자머님전 상서 (從任婦從叔母) (宗질부가종숙모제을나난편지)

여(氣) 러(體) 날(安) 외(康) 합(合) 지(不) 못(못) 하(하) 와(와) 하(하) 회(懷) 궁(宮) 사(舍) 오(오) 며(며) 일(日) 간(間) 에(에)

기(親) 체(體) 안(安) 강(康) 하(하) 압(壓) 시(時) 냇(냇) 가(各) 복(慕) 모(母) 리(里) 압(壓) 지(不) 못(못) 하(하) 압(壓) 나(나) 이(이) 다(다) 종(宗) 질(質) 부(夫) 난(難) 의(의) 시(時) 고(高) 잘(將) 잇(잇) 사(舍) 오(오) 나(나) 자(昨) 일(日)

에(親) 친(庭) 덩(庭) 어(어) 머(머) 님(님) 편(片) 지(紙) 를(를) 뵈(覓) 온(溫) 즉(即) 기(其) 간(間) 에(에) 어(어) 머(머) 님(님) 제(제) 서(書) 삼(三) 눈(눈) 으(으) 로(로) 루(累) 일(日) 신(辛) 고(苦) 하(하) 시(시) 와(와) 약(藥) 국(局) 에(에) 응(應)

담(膽) 을(을) 루(累) 차(次) 시험(試) 하(하) 시(시) 되(되) 종(終) 래(來) 효(效) 력(力) 이(이) 업(업) 다(다) 하(하) 시(시) 니(니) 근(近) 일(日) 매(賣) 품(品) 에(에) 어(어) 대(大) 진(眞) 품(品) 이(이) 잇(잇) 삽(삽) 나(나) 잇(잇) 가(各) 듯(듯)

자(差) 온(溫) 즉(即) 아(阿) 자(自) 머(머) 님(님) 댁(宅) 에(에) 진(眞) 품(品) 이(이) 잇(잇) 슬(슬) 뜻(뜻) 하(하) 다(다) 하(하) 압(壓) 기(基) 복(伏) 고(苦) 하(하) 오(오) 니(니) 몇(分) 분(分) 중(重) 간(間) 하(下) 송(送) 하(하) 압(壓)

시(差) 면(面) 차(差) 도(道) 를(를) 잇(잇) 을(을) 뜻(뜻) 하(하) 오(오) 이(이) 다(다) 상(上) 서(書) 가(各) 초(朝) 지(止) 못(못) 하(하) 압(壓) 나(나) 이(이) 다(다)

答從任婦 答從任婦

年 月 日 從任婦姓 上書

累日阻隔 消息 手札 日來

侍狀 無恙 慰幸 親堂眼患 親分 魚問 請求 熊膽

시상이 무양하니 위행이나 친당안환이 괴로시다 하니 오작초민하라 괴별하응답은

과시진품이 있어서 삼눈에 루시루험하여 신효를 보기로 친분잇난 사람 청구하난대야니

줄슈업서 슈응하고 비단안질이 다어혈에도 먹인다 하야 여러사람들이 가져가고 남어

지 앓겨둔 것이 몇돈 증되기로 한돈 증을 보내니 시험하여 보며 즉시 효력이 잇슬 듯하다

年 月 日 從叔母答 日從叔母答

再從兄主前上書 再從弟 再從兄 片紙

여러날외압지 못함은 한가한음이 업시 분주한 사세오나 복송만나 오며 일래에

체도 만안하오시 냇가 복송구구 지지오이다 재종데난 기간에 만쥬시찰할갓다가 작야

無恙 病업난 矣 俗다고 焦悶 民망한 神效 神通한 親分 親한정

困憊 尙은 矣

狼狽 일을난 矣

華翰 函지 矣

勞碌 勞에 矣

에 회환하여 곤비난감이 온중에 명일이런 장절공고라 하압난대 동첩을 보온 죽연미복

으로 입찰하라 하오니 집에 예비난 못하엿고 졸디에 차찰할도리가 업삼고 형주입으

시든 것이 잇난 듯하와 복고하오니 후라처에 벌니 셉슬지라도 차자보내주셔야공고

랑패를 면하겠사오니 하량하시 압소서 전여 밋고 잇사오며 상서가 초지 못하압나

이다

年 月 日 再從弟名 上書

再從弟奉答 再從弟奉答

여러날만나지 못하기로 기간답문한즉시 찰길을 하얏다 하더니 화한을 승접하야작

야에 회환한 줄알고 살피건대 視察

사후가 로록한 남어 지에 곤되라 하니 소려무임이 압 재종형은 한 모양이며 괴별한 연미

복은 내게도 율유회청첩이와서 잠시 입찰하겠기로 신건은 보낼 슈업고구건이 맞찰잇

서 조곰 두색하엿스나 그려도공고랑패난 면할터이니 그대로 입고쳐루소명일공고에

만날 뜻하여 아적 곳치 노라

年 月 日 再從兄字頓
일재종형자돈

漢々 迢迢

雲山 漢々 하고 도로가 초々 하야 상봉도 희활하고 서신도 격절하니 차절한 회포어느

매간 절치아니라 오연하야

體事 萬重 大度 均迪 某任兄弟 工夫 勤實 區々 願聞 三

從兄 衰 貌樣 漸々 頹唐 宗형은 쇠한 모양이 점々 되당하고 늙은 병이 더욱 심음하니 괴롭고 민망하외년전상봉

할 때애 나의 정세를 대강 말하였거니와 이제 난내나 이 절순이 불원하고 사속지망이아

주업난대 몸성할 날은 별로 업스죽로 거인사를 알슈업서래 일죽난 날이면 루대 향화를

봉사 무인이 오 부부량인을 매장이 무주하니 우리 집이 번성치 못하고 단지 몇집에 그대

도생각하면 나를 무후하게 들수난 업난 터이니 장자아 모로나의 사속을 돈정하고 나난

즉금치신할 슈도 업스니 군이다리고 오게 하소이를 위하야 아적 곳치 노라

大度 원정안
均迪 근로편
頹唐 쓰러진
呻險 애난소

年 月 日 三從兄字頓
삼종형자돈

三從兄 主前上答書

潦炎 장마더

봄이면 농시되고 여름이면 요염되고 가을이면 추우되고 겨울이 며설한 되어 절원한도

자와업의여살피건대

靡寧 편치못
汨沒 받분뜻

體節 長時 老病患 靡寧 伏慮 萬千 三從弟 家 汨沒 涖沒

레절이 장시로 병환으로 미령타하시니 복려만천이오이다 삼종데난 가루에 골몰하와

趨時 진작과
갓흔뜻

형주덕을 무후하라 할슈가잇삽나잇가 진시마암두신아해를 다려다가 교훈이나하시

고성취나시 기섯드면 조홀것을 이제 난장성한것을 솔양하오셔 명령을 삼으려하시니

만시지탄이 업나잇가 그러나 命意 가이러하신바에 난거역할슈업사온 즉아모날로
장자아 모를다리고 올나가갓사오니 하량하시압소서 수이면 알차로 아적상답가초
지못하압나이다

居然 잡안과
갖흔뜻

省事 삼부모의
뜻

齊會 일제히
모인뜻

竣功 일맞치
난뜻

剝落 셔러진
뜻

族弟 族兄

族弟가族형제하난편지 片語
昨秋墓下에서 잠시배알하압고 거연이 주년이갓가오니 향모간절이오며 추색이갑사

온대

례도만안하시압고 大小宅諸節 안하시닛가 복송구々지시오며 族弟 省事粗

안하오니 伏幸 복행이오이다아모공산소에 개사초와 석의신비사건으로 작년에도 발론하

다가결과를 못짓고 각처제종이 허여졌스니 今秋時享 금추시향에 난제종이 제회할터이온즉다

시발론하고 단명코명준으로 竣功 준공하려하오니 時享 除百事하고가시게하시압소서

우리제종되어아모공산소를 잇더케 崇奉 송봉하난터인대 사초가 붕회하고 석의가 박락하

여행로지인이 차탄할디 地境 경에 이르니 엇지한심치아니릿가 이를위하와악직긋치압나

이다

년월일 族弟名再拜 族弟名再拜

大度 그사람
원집안
안고도평
안한뜻

京郷 落落々 하야서신조차희할하니 情懷 彼此一般의외에 惠書 혜서를

승하하야살피건대 承荷 承하하야살피건대 體事萬重 體事萬重하고대도균적한소식앙위만々이 族兄 族兄은작년모양으로지내고흔실이별

고업스니 사행이로라아모공산소에 개사초와 석의중슈사건은 子孫 子孫은자손된도리에누가감

히이론하리가잇스리오시향때다시발론할것업시 通文 通文度를아주발간하야시향에

오난제종의게한도식맛기고비용금은 各宗中 各宗中에분배하여 明春清明 明春清明으로준슈이슈

합하게하고주무하난사람일이인간맛겨 石役 石役은착슈하야 明春清明 明春清明날입석

하게하고사초난명춘청명림시설역하야 清明 清明날로준공키로주선하소좌요하야긋치

노라

년월일 族兄名拜 族兄名拜

외조부주전상서 外祖父 外祖父가외조부세을나난편지

拜退 後累朔
배퇴하온후루삭되도록한번상서치못하오니 소위학업에 틈이 없셔 그리하오나 하정
所謂學業

氣體候安寧
복송이오며 춘한이 즉々하온대
귀례후안령하시압고 한머님 제절이 강건하시오며 외숙과 외숙모도 안사하압나잇
諸節 康健

伏慕區々不任下誠之至
가복모구々 불임하성지지도이다 외손은 부모모구안하오니 복행이오며 매일슈학은시
伏慕 區々 不任 下誠 之至

期
귀를일치안코부즈런이 하오며 하학후복습도 쉬지안코 밤들도록하오나 남이 열가지
下學後復習

를 능히하면 나날 백가지들을 능히 할 재조가 업삼고 밀등만 할 샤름이 오니 복민々々이
能 能 才調 免 劣等

오이다 방학시기가 되면 즉시 배알하겠사오며 안후를복랍하압고 상서가 초지못하
放學時期 即時拜謁 安候 伏探 上書

압나이다
年 月 日 外孫姓名 上書 상서

外孫同見 외손회견

陽界 사람사 난세상
陰兆 정조
늘어갈사록너의 무리를 오래 못보면 생전 못볼 생감이 자조잇스니 아망양계상이
不久 兆朕 意外手書 生前 生覺

省履 의심음
無恙 뜻
懷抱 생각

階梯 을나가 난뜻
竿頭 극히 높 혼뜻

自得 스사로 아난뜻
髓々 뜻

潦炎 장마디 위

省履無恙 父母無故 工夫勤實 懷抱 慰勞 外祖 衰老
성리무양하고 부모무고하고 공부근실한가보나 이 회포가 적이 위로된다 외조난쇠로
病 歲月 世上滋味 家內緣故 多幸
한병으로 세월을 보내니 세상 자미가 무엇이잇스리 오가내연고업슴으로 다 행하다네
工夫 法 進步 達 階梯 來日 階梯
사람공부하난법을 뜻지 못하였나 오날한계제에 나아가고래일한계제에 나아가면
自然 百尺竿頭 進步 速 同類中 自得 生覺
자연이 백척간두에 진보할 것이 오속하고 저하면 달치 못하니 동류중에 뛰어난 생각
念 髓々 才調 研究 自得 百倍
을 말고 부즈런이 뇌고 부즈런이 외의 잇지 말고 글 뜻을 속으로 연구하여 자득케 하고 일
念 髓々 才調 研究 自得 百倍
념에 조々하면 재조잇난 사람의 하로 부즈런이 하고 열을 노나니 보다 백배나 으리니 일
放學
로 힘쓸지이다 방학하면 난부대와 보아라 아직곳천다
年 月 日 外祖答
年 月 日 外祖答

外祖父主前上書 외조부주전상서

(외손부가식의외조부세을니난편지)

한번가서 배알하올마암느리 잇사오나 총々시하에 행지를 임의로 못하와 사모하난하
懇切 拜謁 潦炎 極甚 屬々侍下 行止 任意 思慕
정만간절하오며 요염이 극심하온대
氣體候安寧 極甚 諸節 安寧
그례후안강하압사고 한머님 제절이 안령하시오며 외숙과 외숙모도 안사하압나잇

重省 중시하

가복모구々부리압지못함오며 외孫婦 重省 無頃 祖父母 安寧
며구고일안하오니 伏幸 今夏 仁蔘 斤 軟雞二十首 伏呈
름에난로인보기에삼계만한것이얼다하압기인삼두근과연계이십수를복정하오니
每日調服 生涼後 即時拜謁 上書
매일조복하시압소서생량후에즉시배알코저하오며상서가초지못하압나이다

外孫婦同見
외손부회견

年 月 日 外孫婦姓 上書
年 月 日 外손부성 상서

매일십이시에어는때보고심은마암이업스리오마난나역시근력이부치여진괴들못
每日十二時 亦是筋力 振氣

하여한번도못가보니섭々한정리난일반이다슈찰보고가초알건대
情理 一般 手札

중성이무탈하고 重堂諸節 一安 舅姑俱安 外祖 艱辛
중성이무탈하고 重堂諸節 一安 舅姑俱安 外祖 艱辛

이지내고또더위로심히괴로나집안은별고업다보낸인삼과연계난먹기난잘하고
氣運 奉老 處地 供養 餘暇 別故 仁蔘 軟雞 生覺

괴운도차리겟스나봉로한처디에공양할여가가엇지잇서이곳까지생각하얏나너
誠心 嘉尙 不安莫甚 生涼後

의성심은가상이나또로혀불안막심하다생량후한번와보면작히반가우랴아직곳천
誠心 嘉尙 不安莫甚 生涼後

一般 가흔뜻
重堂 조부모
艱辛 어려고

嘉尙 뜻기름한

다

年 月 日 外祖答
年 月 日 外조답

외祖母主前上書 外孫자가 외祖母
외조모주전상서 (외손자가 외조모께 올린 편지)

拜退 近一期 思慕 筋力 康健 悉切 春色 佳麗
배회하온지근일삭되오니사모하난마암더욱간절하오며춘색이가려하온대
氣體候萬康 祖父母主諸節 如常 伏慕區々不任下誠
외례후만강하시압고 한아버님근력이강건하시닛가복모구々불임하성이오이다
外孫 重省 無頃 祖父母主諸節 如常 伏慕區々不任下誠
외손은중성이무탈이압고조부모주제절이여상하시오며부모구안하오니복행이로
外孫 重省 無頃 後園 花柳 爛熳 命令 老人
소이다오날일기가정히화창하압고집후원에화류가란만하온대마참안악로인여러
分 談話 祖母 한머님외셔오시라난명령이게시와인력거를
분이오셔담화하시다가조모께서 한머님외셔오시라난명령이게시와인력거를
보내오니즉시 即時 行次 행차하시압소서여러분이고대하시난중이오니 하촉하시압소서
上書 上書 上書 上書
상서가초지못하압나이다

年 月 日 外孫姓名 上書
年 月 日 外손성명 상서

重省 중시하

爛熳 무르누
行次 行하야
下燭 나려생

外孫同見
외손회견

註解新式家庭往履

重省 중시의
重堂 조부의

달포 못보니 해포 못본듯 궁겁든 차글시 보고 반기며 이사가이 춘창에

重省 安吉 重堂氣力 如常 父母俱安 是可爲慰 外祖母

한모양이 오니 외조제셔도 큰병환은 아니 계시고 아해들도 무고하다 오라난 괴별은

亦是醫家 病患 兒孩 無故 某々老人 寄別

나역시올적하나 갈때가 업서심사하든 차에 인력거하인의게 드른즉 모로인이다

叙懷兼 人力車下人 座席 不得不參與 老人

이분계시니 즉금청하여 동행하겠스니 그리알고너의 조모제엿자와라이만곳친다

分 即今請 同行 祖母 年 月 日 外祖母答

외조모주전상셔 (외손부가식의외조모제을나난편지)

人便 外祖母主前上書 外孫婦 總外祖母 片紙

인편은 자조잇사와 문안은 뜻사오나 한번상셔치못하와 죄송만스이오며 초하일기

微薰 氣力 健康 外叔內外分 安侍 初夏日氣

미훈하온대 氣體候萬康 한아버님기력이 건강하시오며 외숙내외분도안시하압나잇

가복모구구부리압지못하오며 외손부난조히잇삼고구고일안하오니 복행하달이릿

伏慕區々 外孫婦 舅姑一安 伏幸何達

가금년에 윤삭이 드릿사온대 한머님량위분슈의를예비치못하와 외숙과외고제셔

今年 閏朔 兩位分襪衣 豫備 外叔 總姑

장시걱정중이 압더니 일전에 식구제셔결심하시고 내외분슈의감을공단으로 밧구와

長時 中 日前 總舅 決心 內外分襪衣 貢獻 下鑑 幹

슈의두벌을 대소림금사지 짜진것 업시 지여드리오니 모다 자셰이 하감하시고 잘잔

守 大小欵金 念慮 總舅 今年 閏朔 時急

지여드려생전에 보시게한다고 진성섯하엿삼나이다 상셔가 초지못하압나이다

生前 盡誠 上書 年 月 日 外孫婦姓 上書 상셔

외손부회견 外孫婦同見 年 月 日 外孫婦姓 上書

인편자조잇난줄알고나도편지한번못하엿스니 하독니 만죄송하리오나도 무심한사

人便 片紙 何獨 罪悚 無心

何達 엿지엿
잡난뜻

下鑑 나라보
나뜻

幹守 잘두난
뜻

酬酌 서로만
하난뜻

耽々 혼뜻
조

省狀 상의신형
상뜻

無恙 병업난
뜻

陽界 사람사
뜻

註解新式家庭往履

五三

積累 은래사
은뜻

老炎 는더위

靡寧 편치못
한뜻

焦悶 속타고
민망한
뜻

下燭 나려생
뜻

積阻 은래막
힌뜻

湯候 친환
한뜻

焦悶 속타고
민망한
뜻

趁時 친작과
뜻

差道 나은뜻

綿細 布 蔑以加矣 貢綴 可當
면주와베면멸이가의어날공단이가당할것이냐너의의구용심하난것이너무감사하
不安 由 近日人心 自己父母襟衣 貢綴 貢綴
교불안하다근일인심이자기부모슈의도공능공단으로하난이가별로업난대누가장
人丈母爲 用心用力
인장모위하야이러케용심용력하리가잇스리오이러한심덕으로인의를적루하니
의집이엇지창대치아니리오무궁한사연은지리하여아직긋친다
昌大 無窮 辭緣 支離
년 月 日 外祖母答
외조모답

外叔主前上書 甥任 外三寸

생질이외삼촌세을니난편지 片紙

年 月 日 外祖母答

老炎

氣體候萬安 新涼 快

귀체후만안하시압고 外叔母主諸節 一寧

하오닛가복축구사부리압지못하오며생질은어머님환후가근일삭미녕하시와여러

의원에게문의하고약을쓰오나효험이업사와극히초민하압더니일전에어느친구가

아모의원을천거하난대삼세대방가오의술이고명하다하압기청하여진맥하온즉로

인의기허하신빌미라하고귀용군자탕한제를쓰라하오니즉금용이어대호품이잇삽

精爽快

外從 便

患候 近一朔靡寧

極 焦悶

醫術 高明

歸茸君子湯 劑

即今茸 好品

精神 爽快

外從 便

患候 近一朔靡寧

極 焦悶

醫術 高明

歸茸君子湯 劑

即今茸 好品

나잇가 叔主宅 恒常留念
속주대에항상류념하시난것이잇슬듯하와복고하오니십량중만 하송하
사오면대단긴감하오이다매첩에오전중식너엇사오니 하촉하시압소서상서가초
지못하압나이다
伏告 十兩重 下送

甥任同展 生질회전

年 月 日 甥任姓名 上書 生질성명 상서

近一朔消息 積阻 事故
근일삭소식이적조하여무슨사고가잇난가궁금하야사람을보내라하든차서신보고
書信

살피건대

탕후가대단미녕하신가보니오작초민하라병환드신지가근일삭인데엇지진시괴별
이업섯나냐처음드르매봉려무궁하다근일은병증세가감괴체증이외에조곰길흔빌
미면어대고명한의원이잇셔야약을바로써효험을보나나보통짐작하고방문내여다
幸 高明 醫員 藥 效驗 普通

행이마지면차도를보고불연하면오래신고하니답々한일이다로인병환은의례이
幸 差道 不然 辛苦 沓々 老人病患 依例 氣

허하시다할뜻하나아모커나써보와라록용십량중을보내고금명간자주제가외올차
虛 虛 虛 今明間姊主 次

로아직곳친다

年 月 日 表叔 答

외숙모주전상셔 (甥任 外叔母 片經)

경향이락々하와배알도극난하압고 (京鄕 落落々하와拜謁도極難하압고 문후도비편하오니사모하난마암만간절하오 (問候도非便하오니思慕하난마암만간切절하오

여차시춘한에 (此時春寒에

외숙주기력이건강하시오며외종데형도안시하압고모질형데 (外叔主氣力이健康하시오며外從弟兄安侍모질형데

도공부근실하오닛가복모구々부리압지못하오며생질은궁향에침복하와농업이나 (工夫勤實하오닛가伏慕區々부리압지못하오며甥任은宮鄕에 침복하와농업이나

힘쓰고집안도무고하오나자식이점々장성하여가난대가정교훈이라고명색은하오 (力쓰고집안도無故하오나子息이점々長成하여가난대가정교훈이라고名色은하오

나그도전력이못되압고이곳은학교사숙간에도모지업사온죽독히설비할능력은업 (那도전력이 못되압고이곳은學校私塾間에도모지업사온죽독히設備할能력은업

삼고우유도일하오니그대등기하오면장차금슈에갓가을지라주야로관려무궁하 (優遊度日하오니그대等기하오면將次禽獸에갓가을지라晝夜로關慮無窮하

오니렴치를불고하고숙모주택으로보내여모질과학교공부를갓치하오면래두성 (廉耻를不顧하고숙母主宅으로보내여모질과學校工夫를갓치하오면來頭成

인이되갓사온죽아모리어려우실지라도뎡해간두시고교육하오셔사탐이되도록인 (人이되갓사온죽아모리어려우실지라도뎡해간두시고教育하오셔사탐이되도록인

落落々 (서로면 뜻)

家庭 (계경안)

等棄 (난버려두 뜻)

下燭 (나려생 뜻)

咫尺 (가흔갓 뜻)

無恙 (병업난 뜻)

浪遊 (공연이 노난 뜻)

도하여주시면이난즉생질의 집을성립하여주시난일례오니 하촉하심을천만복출 (導도하여주시면이난즉甥任의 집을成立하여주시난일례오니 하촉하심을千萬伏祝

甥任 回展 生질 회전

근일은천리원정이라도사람래왕과셔신상통이 지척갓거날엇자그곳은정거장과우 (近日은千里遠程이라도사람來往과셔신상通이 지척갓거날엇자그곳은正거場과우

체국이모다멀어져래왕동신이극히란편하니 괴악한거디도만도다의외셔신밭아가 (遞局이모다멀어져來往通信이極히難便하니 괴惡한거디도만도다의외셔神 밭아가

초살피건대 (身) 上 無恙 (眷) 率 (緣) 故 (十) 分 欣 慰 (外) 叔 母 (上) 下 眷 口 (如) 前 (多) 事 無恙하고 眷率이 모다 연고 업스니 십분欣慰라 외숙모나상하권구가 여전하니다 (緣故가 십分欣慰라 外叔母나상하眷口가 여전하니다

행이로라사람의집이 자식을나으면어려서부터 교육함은 부모의 큰 책임이라 만일교 (幸이로라사람의집이子息을나으면어려서부터教育함은부모의 큰 책임이라 만일교

육이업스면인간에 한 기물이라 잇지인류에 처론하리오 모손아가 즉금나 이십여세에 (育이업스면인간에 한기물이라 잇지인류에 처론하리오 모손아가 즉금나 이십여세에

집에서랑유하면어느새공부를하리오 옛말에 이십전공부오 삼십전공명이 라하니 공 (夫) 家에서랑유하면어느새工夫를하리오 옛말에 이십前工夫오 삼십前公명이 라하니 公

不日 시급한 뜻

崢嶸 높은 뜻
仲秋 八月

려울것업고공부권면은내손자와갓치하야아모쪼록성공을시길러이니아모렘려말
工夫勸勉 孫子 成功 念慮
고불일상송하야라아직긋치노라
不日上送

년 年
월 月
일 日
외속모 外叔母
답 答

表從奉狀 (內從兄 外從弟 片經)
표종봉장 (내종형이외종데의게하난편지)

누른구름은사야에가득하고소령한바람은일련이쟁영하니이때난중추가절이라
四野 溯頌願聞 內從 昨日貌樣 一天 崢嶸 仲秋佳節

례사만중한지소송원문이내좋은작일모양이로라명일은팔월십오일이라아모
禮事萬重 內從 昨日貌樣 明日 八月十五日

친산에가서절사를참여하겟난대의조부주산소도한산록인죽군도부득불갈러이니
親山 節祀 參與 外祖父主山所 山麓 君 不得不

한가지동행하게하소일년에춘추량차절사를묘직만맛겨두난것이자손의도리가아
同行 一年 春秋兩次節祀 墓直 子孫 道理

니오일^{一日程}경이^{來往}면래왕할러이니제백사하고조조에내게와서작반함이엇더하고협하
除百事 早朝 作伴

야우리두집장도가그림경에잇스니금년농형이엇지되었난지회로에잠시보고오면
隣境 今年農形 回路 暫時

조홀뜻하의아직가초지못하노라

년 年
월 月
일 日
內從兄字頓
내종형자돈

居然 감싼사

內從兄主前答上書
내종형주전답상서

갈대가푸르고이슬이희니거연히중추시절이온대 하셔밭자와업디여살피건대
體度萬安 伏慰無任 居然 仲秋時節 下書

데도만안하시니복위무임이로소이다외종데난한모양으로지내압나이다자손되여
道理 一年寒食秋夕兩次節祀 外從弟 貌樣 子孫

향화밭드난도리에일년한식추석량차절사에엇지참여치안코집에연연이잇사오릿
香火 道理 一年寒食秋夕兩次節祀 參與 偃然

가명일에조발하겟사오니조반을재촉하여잡수시고기다리시압소서그러나절사후
明日 早發 朝飯 寢具

에장토구경이나하려면자연저물터이온즉침구난가지고가시게하시압소서명일배
庄土 自然

알차로아직긋치압나이다

년 年
월 月
일 日
외從弟姓名
상답 上答

姑叔主前上書
고숙주전상서 (부절이고모부제을니난편지)

山川 脩阻 道里 絕遠 經年 拜謁
산천이슈조하고도리가절원하와경년도록가서배알치못하압고상셔도민삭히못하
山川 脩阻 道里 絕遠 經年 拜謁 上書 頻數

오니복송만^{伏候萬々}이오며춘일이재양하온대
春日 載陽

기레후만감하시압고 고모주제절이안녕하시오닛가복모구^{伏慕區々}불임하침이오며부
氣體候萬康 姑母主諸節 安寧 不任下忱 婦

粗安 녕대강안
뜻

幹檢 보살과
난뜻

懶散 게으른
뜻

堂候 그사람
부모제
절
그사람
諸致 집안
뜻

질은 所謂月給生活 暫時 間隙 親候 粗安 內從 道里 絕遠 性質 懶散
學校工夫 着實 洞里 婦任 山麓 今次 實施 測量 學
학교공부도착실이하압나이다아모동리부질의집산록은금차에실시측량이되오니
父主名義 請願 提出 遺漏 幹檢 費用金 下示
부주명의로청원을제출하시고유류업도록간감하여주시압소서비용금은 하시하
시난대로복정하겠사오며상서가초지못하압나이다

伏呈 上書

婦任奉答
부질봉답

年 月 日 婦任姓名 上書
년 월 일 부질성명 상서

한번단어를생각이해포잇건만진기를못하니도리도절원하거니와성질이라산한듯
生覺 振起 道里 絕遠 性質 懶散

이러항상붓그럽든차서찰을원전하니반가은증불안하로라가초알건대
恒常 次書札 遠傳 中不安

시상이안호하고 당후안강하시며제치무경하고아해도잘잇스니위희만々이며월
侍狀 安舒 堂候安康 諸致無驚 兒孩 慰喜萬々 月

금생활에잠시들업숨은사제고연이니엇지하리오고숙도날마다동복배다리고춘경
給生活 暫時 事勢固然 姑叔 撞僕輩 春耕

하운과추슈동정에한국이업스니이일은바생애불잠한이오흔실이별고난업노라산
夏耘 秋收冬藏 間隙 生涯不暫閑 渾室 別故 山

록일은부탁아니기로범연할리가잇스리오신편에도장을보내고비용일관은렴도말
麓 付託 泛然 信便 圖章 費用一欸 念

迷舉 兒孩工夫 君 勸勉 君 老親 從
라미거한아해공부가엇더한지군도들잇난대로권면하고군의 로친께서도때々로
教訓 成功 區々 辭緣 年 月 日 姑叔 類

교훈하여성공케하기를구々히바라노라남은사연아직긋치노라
年 月 日 姑叔 類

姑母主前上書 家任 姑母 片紙
고모주전상서 (가질이고모세을니난편지)

仲春 二月

粗安 녕대강안
뜻

正初 拜退 後 仲春 連 內從弟 安侍 伏慕
정초에배퇴하온후말서중춘이되온대연하와
氣體安康 姑叔主諸節 安寧 省狀 無頭 伏幸 日前

리압지못하오며가질은친절이조안하시고성상이무탈하오니복행이로소이다일전
關新婦 極佳 家任 親節 粗安 省狀 無頭 伏幸 日前

에아모집의셔자식의게동혼이왔사온대세덕과가세난언론할것업서조커니와최대
兒息 通婚 世德 家勢 言論 仔細 最大

관신부가극가하여야허혼할터이온대그규양일절은 아자머님께서자세이아르실
許婚 宗婦 閨養一節 指示 萬無

뜻하와복고하오니제집에종부될사람이온즉 범연이지시하실리가만두하오니
伏告 宗婦 泛然 指示 萬無

하하축하암서범절이극합다하사오면주단을보낼가하압나이다천년은음소하시고
下燭 凡節 極合 柱單 親年 隆卽

정세가급하오이다상서가초지못하압나이다
情勢 急 上書

註解新式家庭往履

가정회견

년월일 가정명상서

隆冬 昨日 陽春 歲月 意外 書信 意外 書信 意外 書信

侍履 安好 親候 粗安 姑母 如前 大度 別故 大度 別故

아모 집 규양은 비단 연척 쌀 더러우이 양육한 터이라 용모가 미우하고 부덕이 정녕하고

性行 溫純 才質 敏活 針線 裁縫 綾羅 錦縵 飲食 烹飪

은진수성천이라 도 못할 것이 업스니 그리한 규양을 어대 가 구하리오 내 가 별서 버림 유

의 하야 한번 말 하엿더니 필연코 내 말을 인 하야 통혼한 듯 시부니 두 말 말고 즉시 주단 보

년월일 고모답

북은 료화 흰마름은 정주 간에 들니 잇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연과 상에 가득 하니 이 때 경

내데 봉장 외從兄 內從弟 片紙

侍履 親候 粗安 大度 別故 美嫵 貞靜 敏活 能란 한

珍羞 饌饌 珍羞 饌饌 珍羞 饌饌

년월일 가정명상서

隆冬 昨日 陽春 歲月 意外 書信 意外 書信 意外 書信

侍履 安好 親候 粗安 姑母 如前 大度 別故 大度 別故

아모 집 규양은 비단 연척 쌀 더러우이 양육한 터이라 용모가 미우하고 부덕이 정녕하고

性行 溫純 才質 敏活 針線 裁縫 綾羅 錦縵 飲食 烹飪

은진수성천이라 도 못할 것이 업스니 그리한 규양을 어대 가 구하리오 내 가 별서 버림 유

의 하야 한번 말 하엿더니 필연코 내 말을 인 하야 통혼한 듯 시부니 두 말 말고 즉시 주단 보

년월일 고모답

북은 료화 흰마름은 정주 간에 들니 잇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연과 상에 가득 하니 이 때 경

내데 봉장 외從兄 內從弟 片紙

近頃 이 사 이 뜻

合體 이 품 몸

管領 주 장 하

蘇東坡 唐人 文章

諸益 모든 조

一葉 적은 배

等待 미 리 난

崇體 일 품 몸

管領 주 장 하

致 江湖上 第一 近頃

태만중하고 수사 강루에 무한한 풍경은 마나 팔령하난지 소송구구라 외從兄

홍진속에 루를 버셔나지 못하고 요사 골사하니 가란가 소로라 금년은 임술이 오 재명일

은 칠월과 망인대 엿지 소동파의 선유만홀로 아름다와 고금에 칭하리오 후인도 전인을

이여 한번 놀지라 명일 오후에 모사 제익이 작반하야 군의 집에 가기로 상약 하엿스니 하

로 밤연락할 설비도 차리고 그물치 난사 람과 동소 부난 손과 일업 현쥬를 적벽아래 등대

년월일 외從兄名頓

외從兄 主前 答上 書

오동입 새우물아래 찌러지고 매미 소래나 무우에 눕히나니 칠월던기가 신량이 되온지

라 하셔 밤자와 퇴압건대 근일에

승례 후 만안하시오니 복위구구 지지오며 내종데 난 강호상 풍경을 조히 관령하오나 성

註解新式家庭往覆

盛事 盛事 王戊七月既望船遊

意中人 意中之人 再明日船遊諸具

獸炭 獸炭 伏慕區々不任下忱

珍重 珍重 慰溯無駭 姨叔 前貌樣

市上繁華地 可比比 次々成冬 蕭瑟 江亭 寂寞
시상번화지에엇지가히비하오릿가이곳이차々성동되면소슬한강정이너무적막하
오이다임술철월기망선유난에로부러성사라칭하압난대금년이마참임술이오니엇
지허송하오릿가재명일선유제구난일々히준비하겟삽고명일밤에주효설비도여간
하오리니의중지인과합씨 왕臨하오셔수일소창하심이역시성사오이다상답가초
지못하나이다

姨叔主前上書

姨侄 姨母夫 片經

年月日 內從弟姓名 答上

나 무임은 표령하고 언구름이 영괴오니 초동일기치위를 재촉하난대 차시에

氣體萬安 姨母主諸節 安康 伏慕區々不任下忱 姨侄
기레만안하시압고 이모주제절이안강하시닛가복모구々불임하침이오며이질은

금추에사제부득이한사고가잇사와산록하나를매슈하여장작과슈탄을한슈십척전
복을하야독도에대이고강주인의게도매를하러하온즉저의욕심만채우고남의손해
난불계하오니심사소관에허급할슈업기로소천처에분용하러하온즉 숙주덕에한

두어배짐간입용하시압소서가금은전변이나될마콤결정하겟삽나이다상셔가초지
못하압나이다 價金 錢邊 決定 上書

姨侄同展

年月日 姨侄姓名 上書

언구름과영귀어름이 초동일기졸한한대래셔를접독하야가초알전대
起居珍重 慰溯無駭 姨叔 前貌樣 渾室 別故 寄別 柴政 年
래에세회목을예산하더니편지본즉사기가부득불입용하겟스니두배짐만드려보내
來 火木 預筭 片經 事機 不得不入用 區處 付託
고슈탄삼십석만한데입송하라남어지난어대모다구쳐할곳이잇난지부탁아나라도
獸炭三十石 入送 價金收捧 詳審 正
범연할것은아니나가가금슈봉하기어려운자리난상심하여정히치을슈가업거든아적
泛然 積置
적치하면나도더러구쳐하여슈리라아적곳치노라 區處

姨母主前上書

姨侄 姨母 片經

年月日 姨叔字頓

不日 하로안
난뜻

長々 春日 拜退 後數三日 數三年
장々한춘일이해갓흐오니배회하온후슈삼일이슈삼년되온듯하온대이사이
氣體萬安 姨叔主氣力 安康 伏慕
기레만안하시압고 이숙주기력이안강하시닛가복모부리압지못하오며이질은객
中無頃 每日上學 如一 親候
중무달이압고매일상학도여일이하오나친후를오래듯잡지못하와정사복민이오며
日氣 漸々 衣服 莫甚 寄別
일기난점々더울사온대의복이아니와셔주제가막심하오니이제기별하올여녀온대
廣日 不得已 針線 不日內
도광일이되갓삽기로부터이옷감을샅스나침선줄곳이맛당치안으와복정하오니공
錢 不計 針才精美 不日內
전은불계하 침재정미한사람을주시와불일내로입게하여주시압소서이만알외압
과이다

年 月 日 姨侄姓名 上書
년 월 일 이질성명 상서

姨侄回見
이질회견

旅履 나그네
몸업난
병업난
뜻

數三日 懇切 次
단여간지슈삼일에보고심은마압다시간절하든차글시보고그사이
旅履無恙 工夫勤實 親候 久阻 悶 姨母
러리무양하고공부근실한일깃부나친후가구조하였다하니오작민망하라이모난한
貌樣 衣次 近日針線 四面衣次
모양이다보낸의차난근일침선하난곳은여러집이나좀잘하난곳은사면의차가밀너

縵縵 더럽고
해여진
뜻

工錢 此日彼日 急
셔밋쳐할사이가업서공전을밧고도차일피일이루니급한옷을줄슈가있나나내가
이어두어도며나리들다리고밤도와지여셔명일입도록하여보마점문아해들이의복
縵縵 暫時
주제가람루하여셔잠시인덜견될슈가있나나이만긋친다

年 月 日 姨母答
년 월 일 이모답

大熟 큰풍년
방정급
한뜻

姨從兄 主前上書 姨從弟 姨從兄 片紙
이종형주전상서 (이종데가이종형제하난편지)
雨陽 均適 百穀 大熟 秋事 方劇
우양이균적하야백곡이대숙하니추사가방극하온대
侍體萬安 姨母主氣力 安康 伏祝區々之至 姨從弟 今春
시체만안하시코 이모주기력이안강하시닛가복추구々지지도이다이종데난금춘
에어느친구의권면으로백미한오백석을무하엿삽더니봄시가가별로고등치안기로
積置 七月時價 白米限五百石 買 時價 別 高騰
적치하고칠월시가나불가하엿더니풍년이대등하여도로여폭락이되오니방매할슈
업고그중에남의채무가한삼천원되난대독촉이시급하온즉아모의게멧현원유치가
잇다하오니 형주제서말삼하시면엇어쓰갓사오니리자나경하게하고기한은명춘
으로작정하시고소개하여주시압소서명춘은고혈간방매하야청장하갓삽나이다이

大登 큰풍년
금지년
뜻

暴落 금지년
뜻

紹介 거간하
난뜻
세음압
뜻

清帳 거간하
난뜻
세음압
뜻

를위하여아직가초지못하합니다

年 月 日 姨從弟姓名再拜

姨從弟回升
이종데회승

가을한을은재영하고서리바람이소랭하니가을재축이급한지라
惠書 接讀

레사만중하니위하기언이리오이종형은근일추무에골몰하여자연분주하로라부탁
自然奔走 付託

한말은당초에상업이소매하거날아모리친구가권면한들흥리생각을엇지두며더구
當初 商業 素昧 親舊 勸勉 興利生覺

나무곡이란것은흉년을가다리난장사이니곳해야그런일을할묘리가잇난가이왕잘
賈穀 凶年 困督 免 妙理 已往

못된일을죽금말하여쓸데업고남의게곤독은면하여야하겠슨죽채우를되도록소개
則令 困督 免 則債務 租價

하여보겠스나그사람이취리에너무린색하여경변이될가시부지안으의일간통지할
取利 吝嗇 輕邊 日間通知

차로아직곳치노라

年 月 日 姨從兄名頓

외舅主前上書
외구주현상서 (사위가장인세을니난편지)

岬嶮 音흔뜻
蕭冷 찬뜻
汨沒 빛분뜻
素昧 본대모
로난뜻

紹价 거간하
난뜻

吝嗇 돈앗기
난뜻

承寧 문안드
른뜻

華職 영화벼
살뜻

一望 보름

晚炎 늦더위

政履 정사하
잘다사
리난공

去月 下書 하셔
거월에 하셔
至今 上答
지금 상답
伏懷 萬々
복송만々
老矣 甚
로염이 더욱심하

온대
氣體 候萬康 聘母 主諸節 如常
기체후만강하시압고 빙모주제절이여상하시오며 처남형데도안시종사하합니다
妻甥兄弟 安侍從仕

가복모구々 지지오며 외甥은 親節을 承寧이 압고 기간에 道廳 參與 官으로 승차 되엿사
伏慕 區々 之至 外甥 親節 承寧 其間 道廳 參與 官 陸次

오니 그 벼살은 무슨 화직이 오릿가 마난 등급이 오르압고 사무가 번극지안삼고 봉급도
伏幸 華職 等級 親親 兼 拜謁 俸給

좀만 오니 복행이로 소이다 道廳으로 갈때 근친도 하고 겸하여 배알도 하겠삼기 상서
道廳 親親 兼 拜謁 上書

가 초지 못하합니다

年 月 日 外甥姓名 上書

某姓 參與 官 回展
모성 참여 관회전

편지 부친지가 일망이 넘도록 회답 못보와 답々 하든 차서 신보니 목마른 생각이 조곰 풀
片紙 晚炎 甚 一覽 同答 答々 次書 信 生覺

니다 만염이 심하더운대
政履 安吉 參與 官 陸次 莫非 郡守 暨 履 良好 名譽 膺

정리안길하고 참여 관승차난 뜻 받게 되엿스니 막비군수의 성격이 량호하고 명여가 회
政履 安吉 參與 官 陸次 莫非 郡守 暨 履 良好 名譽 膺

註解新式家庭往履

六九

膾炙 자자한
 伊尹 이진정
 有莘 홍나라일
 千駟 말네천
 傅說 적사신
 良弼 하정신
 傅岩 들일홍
 畫像 얼골그
 天爵 뜻다논
 人爵 벼살
 九霄 한을
 新元 정초
 仲春 二月

粗安 대강안
 五岳 얼골모
 嗚々 우름소
 嗣續 아들

자한 효력이로다 이려함으로 이윤 갖춘 현인은 유선시들에 밧을 갈되 천사로 마저 가고
 傅說 良弼 傅岩 版 畫像 賢人 有莘氏 天爵 人爵
 부엌 갖춘 량필은 부암들에 판을 짜으되 화상으로 마저 가니 턴작을 닥그면 인작이 스사
 로이 르난 것은 자연한 리치라 종사에 노력하면 만리 구소에 전정이 무한하리니 로옹의
 마암이 심히 깃부 로라 슈이와 보기를 간절이 바라며 답셔 아작 굿치 노라
 自然 理致 從仕 努力 萬里 九霄 前程 繁聚 老翁 答書

年 月 日 婦翁答

聘母主前上書 (女婿 聘母 片紙)
 빙모주전상셔 (사위가 빙모께 올린 단편지)

新元 拜退 後 拜謁 下懷 伏候 仲春日氣方暢
 신원에 배퇴하온 후 달포되도록 다시 배알치 못하와 하회복송이 오며 중춘일기 방창하

은대

氣體 候 萬寧 聘父主氣力 健康 伏慕 外
 의례 후만녕하시압고 빙부주지력이 건강하시닛가 복모부리압지 못하압나이다 외

甥 親 候 粗安 今朝 寅時 一男 生 五岳 俊秀 骨格 壯大
 생은 친후 조안하시압고 금조인시에 일남을 생하오니 오악이 준수하고 골격이 장대하

오며 우름소래도 황々 하오니 부모주께서 인간에 업난 경사와 세상에 업난 것됨으로 역
 父母主 人間 慶事 世上 不孝

이시 오니 자식된 마암에 일변 깃부압고 삼십이 넘도록 사속을 못보다가 이제 난 불효를
 子息 一邊 三十 嗣續

文昌 별일홍
 尊堂 사위부

早寡 일죽과
 부된 뜻

簡默 간정하
 고침묵

免 一邊 萬幸 正月初 乳母 產母 順產
 면하갓사 오니 일변만행이 오이다 정초에 엿자 온 유모난 집에 두시고 기다리 마하섯삽
 下人 同趾 念慮 上書 產母 順產
 기하인보내 오니 회지에 갓치 보내 주셔 야젧을 먹이갓삽나이다 산모난 순산하고 국밥
 도 잘먹사 오니 렴려마시압소서 상셔 갓초지 못하압나이다 上書

某郎 同升 某郎 회승

世上 文昌星 文昌星 精氣 稀貴 慶事 形言 老身 兒孩 必是
 세상에서 일것기를 이월삼일이 문창성나린 날이라 하디니 아해가 이날나으니 필시

문창성정기라 희귀한 경사를 엿지형언하리오로 신의 마암이 이러듯즐거온대 尊堂
 兩位分 稀貴 慶事 形言 老身 兒孩 必是 尊堂

량위분 깃부신 마암이 야엇덜타 측량하며 시하정사에 삼십여세 초남이 엿더한 경사리
 或拘忌 嫌疑 侍下 情私 三十餘歲 初男 慶事

오깃분 마암에 난곳가 보고 시부나 후구지혈의 가잇서 못가고 부락한 유모난 집에 잇슨
 付託 乳母 依託

지가 오란지라 어려서 양육하야 출가시갓더니 유복을 두고 불행조과하야 의탁할곳업
 不幸 早寡 依託

기로 내게 잇난대 위인이 단정하고 행동거지가 법도잇고 언어가 간묵하야 사부가 부녀
 言語 簡默 士夫 婦女

라도 범절이 그만하기가 쉽지 못하니 유모일사록 단정한이를 극력할지라 정결할방사
 極擇 精潔 房舍

하나를 유고우대하여 유소산모와 갖치자라난 사람이로세 삼일이 참에 가불차로 아적
곳치노라

妹夫 妻舅 片經

積雪江山 陽春世界變換 日氣方暢

令體 삼품몸
消遣 소일하
난뜻

평일 相議 公州地方 田庄一事 其間 探問 別 合意

昨日 柴山 座 果園 梨棗柿栗胡桃 百株 呼價十一萬圓

이오시산이 여섯쇠이오과원에 이조시를호도가 여러백주인대 호가십일만원이오아

모집장도난 추슈팔백여석이오와가륙십여간이오시산이네좌오과원은 일반인대결

가팔만원이라하고도 품은 슈재한재물론하고년々히한소출이오거디난 비산비야한

대산슈지락을 겸하엿고어염시슈와 지어채소라도 무비조라하니마암에잇서일간가

一般 갖흔뜻

보갯스니어느장도든지두집이상의하야사게하고동행하여가미엇디하오회시기다
리고아적곳치나이다

답

一城之內에 달포못되오니 도시골몰한탓이오나복창만々이오며 혜셔밭자와

태레후만왕하시니 앙위구々오이다부데난 긴착한일업시공연이분주하야피로은때

가만으니다기별한말삼은피왕부러의론한일이오가사와장도가합하니장차매슈

할의상이잇난대하여간가보고합의한연후사인즉그리아시고거간하난사람의게일

망후썸가갯다하시압쇼셔그안은추신할틈이업나이다사연아직가초지못하압나이

다

년월일 妹弟姓名

년월일 惠書

년월일 將次買收

년월일 據間

년월일 抽身

년월일 辭錄

년월일 據間

년월일 抽身

년월일 婦弟姓名拜

년월일 婦弟姓名拜

汨沒 밧분뜻
台體 차림몸
據間 사이든
一望 한보름
抽身 몸빼치
난뜻

同婦間 片經
동서간에하난편지